

여야, '정권 심판' vs '巨野 견제' 마지막 유세

이재명 '7곳' 초박빙 지역구 거론 '절호의 기회' 한동훈 수도권 격전지 돌며 '지지층 결집' 호소 정의당 "의석수 유지"...이낙연 '백차지만 10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각각 '정권 심판'과 '거여 견제'를 내걸고 한 표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면서 "총 7곳의 초박빙 접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꼭 투표해 정권 실패를 심판해달라"고 당부했다.

7곳의 초박빙 접전지는 ▲강원 강릉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충남 서산·태안 ▲공주·부여·청양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포천·가평 ▲경남 진주갑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SBS 라디오에서 "10석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여러 지표와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선거구에서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가 나타나고 있다는 여당 주장엔 "저희들 분석에선 어느 곳에서도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다만 막판 중도·부동층 표심의 이반을 차단하기 위해 '검슨'을 강조하고 있다.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여당의 '범야권 200석 지지' 주장에 "자녀친엄살"이라며 "(200석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후보들에게 보낸 유세 지침에서 "마지막까지 절박하고, 간절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달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과 설화는 마지막까지 절대 경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면서 국정안정과 야당 견제를 위한 투표를 촉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 접전지로 분류돼 온 서울 '한강벨트'와 야당 강세 지역인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지역을 돌았다.

한 위원장은 오전 언론에 배포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어려웠던 선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어렵다"며 "(야당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치고 있다. 그런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이들을 막기 벅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홍석준 선대위 상황실 부실장은 BBS 라디오에서 '골든크로스' 현상을 언급하며 "그런 지역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CBS 라디오에서 "저점을 찍고 이제는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기존 의석수(6석) 유지와 지지를 회복을 목표로 제시했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의석 목표로 '백차지만 10석'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석, 5석, 몇 석으로 시작해도 이 꽃을 소중하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목표 의석은 '10석+α'"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비례가 46석인데 그중 3분의 2인 31석 이상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소중한 한표 행사 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9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애리기자

"범야권 200석에 특검법 되면 김건희씨 법정 설 것"

조국 "200석 되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尹대통령 거부권 거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10 총선 전날인 9일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씨가 법정에서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시청 광장에서 "범야권 200석을 얻는 것을 전제로 말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오남용해 왔다"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법을 날렸고 '이태원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날렸다"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오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석을 갖게 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거부권이 필요 없게 된다"며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도 '검찰 독재' 비판에 열을 올렸다. 조 대표는 "부산에서도 당장 국회의

원 후보로 검찰 출신이 많이 나왔고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지역에 '속속' 쏟아지고 있다"며 "그게 검찰 독재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칼 대신 압수수색, 체포, 구속, 세무조사, '입찰 막'을 하니 독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민주당 부산 출마 후보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 국정조사를 공약한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엄청난 돈을 퍼부었으나 투표 결과는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연협뉴스

尹대통령 "AI 기술 분야 G3 도약할 것"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 10% 이상 달성 "전시상황 수준 반도체 총력 대응체계 구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직접 제시하며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고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을 성장에 돕는 1조4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지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주요 국가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만 강진에 따른 TSMC 반도체 공장 일부 가동 중지 등에 대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그는 "정부 관계 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급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각국의 반도체 기업 유치 노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에 뒤처지면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과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파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진수기자

"부정선거 주장, 민주주의 훼손 행위"

노태약 선관위위원장, 강력 대응 천명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9일 "일각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 불신을 조장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선거일에도 지속적으로 투표소를 점검해 국민 여러분이 평온한 분위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표가 마무리된 후에는 국민의 뜻이 담긴 한 표 한 표를 소중히 여기고 정확한 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22대 총선 프리즘

이윤석 "당선 즉시 민주당 복귀할 것"

무소속 이윤석 국회의원 후보(목포시)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당선 즉시 민주당에 복귀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 설 것"이라며 "차기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찾아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목포·신안·무안을 통합해 목포광역시대를 개척하고 목포의 과속 순환 고속화도로, 목포 선창대교,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 특별법, 삼성반도체 유치, 해양수산 산단 조성 등을 통해 목

포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겠다"고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4월 10일 투표일은 무능한 4년을 끝내고 목포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날"이라며 "이윤석이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이정현 "선거혁명, 섬진강 기적으로 보답"

국민의힘 이정현 국회의원 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는 9일 "22대 총선에서 선거혁명, 선거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섬진강의 기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혁명을 보고 싶습니다'란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되면) 순천·광양·곡성·구례 섬진강 벨트에 낙후의 짐을 깨우겠다"며 "지리산권, 섬진강권, 광양만권의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

을 폭발시키겠다. 산업과 관광과 문화와 전통 역사를 조화시켜 지방시대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결위원·대통령비서실 수석·최고위원과 당 대표를 지낸 경험을 토대로 4년 뒤 섬진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진수기자

강은미 "양부남, 지금이라도 그만두라"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후보(광주 서울)는 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후보에 대해 "의정 활동 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 일갈했다. 강 후보는 "정치 플랫폼 뉴웨이즈에서 시민들이 공약을 제안하고 수용 여부를 묻는 12개 질의에 대해 양 후보는 무성의하게 '네'라는 단 한 글자만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양 후보는 한 국내메이스트본부의 질의에도 응답하

지 않았고 이번 질의까지 무성의하게 답변해 의정 활동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게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 할 수 있겠느냐"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준비된 책임자는 강은미"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김성환 "여성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무소속 김성환 국회의원 후보(광주 동남)는 9일 "육아 부담으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운 여성을 위해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동남을 지역을 자전거로 돌며 만난 젊은 엄마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육아 부담으로 인한 안정된 직장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기존 어린이집 운영에 특수성을 부여하는 24시

간 운영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종합 지원시스템을 구축,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겠다"며 "여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육아 양립 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율을 높여겠다"고 약속했다. /박성강기자

신정훈 "농업인 공익적 가치 강화 앞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후보(나주·화순)는 9일 "나주시농어업회의소와 제22대 총선 정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식에는 김덕중 나주시농어업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약 40명의 농업인이 참석했다. 신 후보와 나주시농어업회의소는 농정의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데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측은 ▲농산물

수급 안정 직불제도 및 농산물 공정 가격 보장 위한 법 개정 ▲생선비 절감 제도·법 마련 ▲기후 위기 시대 대응·농업 재해보상 강화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 후보는 "농어업회의소와 소통하며 농민의 팽배율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함께 열겠다"고 약속했다. /영시원기자

문금주 "지역 발전 위해 투표 참여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9일 "이번 총선은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문 후보는 "농어민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과 지방 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진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검증된 새로운 인물,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다시 설 수 있도록 4·10 총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